# 달마 오기 전부터 이미 선법 존재해

〈禪法〉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 ① 중국에서 달마 이전의 선법

### 1) 초기선법의 형성 배경 및 안반선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선종이 성립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선법이 바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선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보리달마(?~536 혹은 532, 528)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보리달마가 오기 전부터 이미 선법이 유행하고 있었다. 즉 달마선법이 중국에 전해진 시기를 전후로 해서 중국에서 유행하던 선법은 교(敎)를 의지해서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주류였다. 즉 안반선(安般禪) 혹은 수식선(數息禪), 오문선(五門禪), 염불선(念佛禪), 실상선(實相禪)등이 이에 속하며, 달마선법도 일정 부분 위 선법의 내용을 계승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선법들은 보리달마가 중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꽤 오랜 동안 유행했다. 이러한 선법들의 토대위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선 즉 조사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외래문화가 처음으로 다른 환경에 전해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반드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때로는 원형에 변화를 감수하기도 한다. 처음에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져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전통문화와 때로는 충돌을,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외래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유사점이 존재하면 새로 유입된 문화와 기존의 문화는 충돌하지도 거부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도 했다. 양한(東漢 · 西漢)이래로 당시 중국에서는 도술(道術)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노장학 및 방술사(方術士)를 통칭해서 도술이라고 불렀다. 서한(西漢) 말엽으로부터 동진에 이르러서 인도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도교의 방술(方術:道術)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불교는 양한 때 당시 유행하고 있던 도술의 일종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즉 도술에 편승을 해서 불교를 전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도 조차 도교와 불교를 분명히 가리지 못했다.

중국 선진(先秦)시대에는 '원기(元氣)' 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으며, 양한에 이르러서 대성했다. 특히 원기(元氣)와 정신 및 신체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즉 형체(身體)는 거친 기(氣)로 형성이 되었고, 정신은 정밀한 기(氣)로 구성되었다고 여겼으며, 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한 양생술(養生術)로 널리 애용 되었다. 그런데 안세고 계통의 소승선법을 번역한 사람들은 '오음(五陰)'과 '원기(元氣)'를 끌어들여서 원기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곧 마음이 평온해져서 질병이 없어지고, 원기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양오행의 부조화로 신체에 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이러한 관점을 초기 소승선법에서도 무리 없이 수용하고 혼합해서 사용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오나라 때 축율염(竺律炎)과 지월(支越)이 번역한 〈불의경(佛醫經)〉에도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점 역시 한나라 때 유행했던 의학 이론과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이 신체 내부의 원기가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원기를 인도해서 삿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심신이 평안해지면 여러 가지의 욕망과 번뇌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의가 된다. 만약에 이미 일으켰다면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以未起爲守意, 若已起便爲不守)"고 했다. 여기서 '수의(守意)'는 오직 일념으로 한곳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도안도 〈안반주서(安般注序)〉에서 "시고안반기식이성수(是故安般寄息以成守)"라고 했는데, 즉 '수의(守意)'할 수 있으면 곧 심신(心神)이 명정(明靜)해지고, 심신이 명정하면 곧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약간의 유사점 혹은 공통점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데 일조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세고 계통의 소승선법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황노신선방술(黃老神仙方術)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 때 전해진 불교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신불멸(神不滅)'과 '인과응보(因果應報)' 등이었다. 〈후한기(后漢記)〉에 보면 "불교는 사람이 죽을 때, 정신은 죽지 않고, 다시 다른 형상을 받는데, 생시의 선악행위에 대한 모든 응보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사한 관점이 중국에 본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회남자(淮南子 · 精神訓)〉에서 "형체는 이미 산실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각 양각색의 '귀신론(有鬼論)' 및 '신불멸(神不滅)'이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물론 이 관점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도 있다. 왕충(王充 · 동한시대)은 〈논형(論衡)〉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있는가?"라고 비평하는 '인사불위귀(人死不爲鬼)' 설을 주장했다.

또 불교의 '인과응보' 론과 비슷한 관념들이 존재하였는데, 즉 '복선화음(福善禍淫)' 및 〈역경(易經)〉에서 말하는 "선을 쌓은 집은 경사가 남아있고, 악을 쌓은 집은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災殃)"고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유사한 관념들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유입된 불교가 큰 문제 없이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물론 불교의 관점과 중국 기존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이 모두 일치하거나 유사점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통의 여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안나선(수식관)을 수행하고 홍법한 강승회

소승선법에 많은 영향을 준 안세고

**달마 전 초기선법, 대상 구체적이고**
**敎 의지해 마음 닦는 수행법 유행**
**달마선법, 기존 선법 일부 수용해 정립**

**초기 불교 도교와 유사하게 인식**
**"심신이 명정하면 곧 성불할 수 있어"**
**초기 소승선법, '원기설' 수용 혼합**
**불교, 중국정서와 유사해 전래 수월**
**불교 '인과응보'론과 유사 관념들 존재**
**소승선법 중 안반선 가장 오래 맥 이어**
**안세고, 중국에서 소승선 최초로 홍포**

중국의 한(漢)나라 말 의진(魏晉)초에 불교가 점진적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불전의 번역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에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이 번역 되었는데, 하나는 전한(前漢)의 안세고(安世高)계통으로 소승불교 계통인 수행방면에 치중하는 선법을 중시했다.

다른 하나는 후한(後漢)의 지루가참(支婁迦懺) 계통으로 대승불교 계통인 반야학 위주로 강학했다. 안세고는 많은 소승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십이문경(十二門經)〉과 〈음지입경(陰持入經)〉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의 내용은 '호흡수의(呼吸守意)'의 뜻을 지닌 선법수행의 지침서이며, 〈음지입경(陰持入經)〉은 불교의 용어 및 개념 등을 해석한 책이다. 〈십이문경(十二門經)〉은 삼독심을 대치하는 수행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세고는 중국에서 소승선(호흡관 수식관)을 최초로 홍포한 사람이다. 그는 승가찰리(僧伽羅刹)의 선법을 전승했다고 전해진다. 안세고는 본래 안식국(安息國)의 태자였다. 그는 출가해서 선정을 닦았으며, 아비담학에 정통하기도 했다. 한나라 환제(桓帝) 건화 초년(147)에 낙양에 이르렀다. 그는 중국에서 30여 년을 홍법했는데, 전후로 번역한 경전이 모두 35부 41권이라고 〈중경목록(衆經目錄)〉에 기록되어 있다.

안세고의 경전 번역은 비교적 소승선에 관련된 경전들 위주였다. 특히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과 〈십이문경(十二門經)〉 등은 소승선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자는 안반선을 소개한 것으로, 의역하면 '수식관'이며, 후자는 '사정려(四靜慮)', '사무량심(四無量)'과 '사무색정(四無色定)'으로 이 세 가지를 통일한 내용을 포함한 선법으로 모두 수식관에 중점을 둔 선법이이다. 특히 삼독심을 대치해서 생사를 초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은 안나반나선(安那般那禪)을 소개하는 경전으로, '안나(安那)'는 '출식(出息)'이 되고, '반나(般那)'는 '입식(入息)'이 되며, 즉 안나반나를 간단하게 '안반(安般)'이라고 한다. 즉 '호흡(呼吸 · 수식관)관이다. 동진 도안(314~385)은 〈십이문경서(十二門經序)〉에서 십이문선(十二門禪)에 관해 자세하게 내용을 해석했는데 "정(定)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선(禪)이고, 등(等)이고, 공(空)이다. 삼독의 끈끈한 중독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했다. 또 선 · 등 · 공에 각각 네 가지가 있어서, 이른바 십이문(十二門)이 된다고 하고 있다. 즉 '선'은 '사정려(四靜慮)'를 말하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로 금욕수행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등'은 '사무량심' 또는 '사범행(四梵行)'으로 성냄을 대치하는 수행법이다. '공'은 '사공(四空)' 혹은 '사무색공(四無色空)'이라고 하는데, 곧 어리석음을 대치하는 수행법이다. 초기 소승선법 가운데서 안반선법은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맥이 이어졌다. 또 강승회(?~280)는 〈안반수의경서(安般守意經序)〉에서 안반선의 특징을 개괄해서 말하기를 '사선육사(四禪六事)'라고 했는데, '사선(四禪)'은 선법을 닦는 네 가지 단계로서 '사정려'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육사(六事)'는 '수식(數息)' '상수(相隨)' '지(止)' '관(觀)' '환(還)' '정(淨)' 등이다. 즉 강승회는 안반선의 과정을 여섯 가지로 묘사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관'이 된다고 했다.1)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선에 비해서 초기 선법은 수행의 대상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동시에 교를 의지해서 수행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또 달마선법이 중국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초기 선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안세고가 전해준 안나반나(安那般那)는 불교 도입기의 초기 선법의 형태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법인 '수식관'을 홍포하고 수행한 사람들로서는 한나라 말엽 및 삼국시대의 진혜(陳慧)·강승회(康僧會) 등이 있으며, 동진에 사부(謝敷)·도안(道安)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초기 선법 가운에서도 특히 안반선(수식관)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염불선을 중복해서 수행한 사람도 있다.

〈동국대 강사〉

1) 두계원, 위도유 지음, 『중국선종통사』, 강소인민출판사, p.31-32.

